



2016년에 열린 정례회 본회의장



제7대 진안군의회는 지난 2014년 7월 4일 개원했다. 전반기 원(院) 구성에 이한기 의장과 김광수 부의장을 의장단으로 김남기, 신갑수 의원은 각각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박명석, 배성기, 정옥주 의원은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 간사를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민의 침묵을 실현하는 열린의회'를 표방하며 힘차게 출발한 제7대 진안군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의결기관으로서, 자치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제 그간의 성과와 소회를 되짚어보며 제7대 진안군의회 전반기를 결산해본다.

소통과 혁신으로 군민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 펼쳐

하루 평균 3건의 일정 소화하며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
2년간 총 375건 민생안건 처리·고용창출 예산 집중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100건·2015년 83건 지적

▶군민과의 소통에 앞장서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결정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 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것은 군민과의 '소통'이었다. 삶의 현장을 찾아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제외한 날에는 일평균 약 3건의 일정(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등)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일례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일정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홍삼한방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진안군의료원, 마이돈 테마파크 등 15개소를 2015년에는 진안읍 하수종말처리장, 로컬푸드 매장, 꿈엔 꿈꾸는 카페, 복합노인복지타운 등 14개소를 그리고 2016년에는 첨단온실육묘장,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홍삼스파, 환경보건센터, 구봉산 등 15개소를 돌아보며 진안군에 산재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진안군의회에 상시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의원이 부재중일지라도 누가 언제라도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 부재의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이에 보태어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등 의견제시를 꾸준히 수신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

▶각종 안건에 제언을 하며 신중한 의사결정

의회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 제정, 단체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대 진안군의회 개원 후 처음 개최된 제211회 임시회(2014년 7월)를 시작으로 전반기 마지막 의회인 제229회 제1차 정례회(2016년 6월)까지 총 11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심의하였다.

약 2년간 총 375건의 안건(2014년 125건, 2015년 175건, 2016년 현재 75건)을 처리하면서 군민 피부에 와 닿는 생생한 민생입법을 추진하였다. 각각의 안건은 상위법과 정책 영향 평가 분석 등을 철저히 실행하여 군민이 선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산의 경우 국가적 경기불황에 대응하고자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증빙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불필요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한편, 소외계층 지원과 군민의 안전에 관한 사안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창출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군정 질문들이 이어졌다.

김광수 부의장은 면소재지 구시장부지 활용 방안, 농업인 월급제 시행,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수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원 해소책 등 농업과 축산업에 관한 질문을 했다.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조성,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버존 지정,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 국가예산 적극적 확보, 건강복지 활성화, 진안 홍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우리 군 '들노래' 발굴 및 보존과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물으며 농업, 복지, 지역경제 및 문화에 관심을 두었다.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은 도·시군간 인사교류와 뒷밭 쌈지농업 유통·판매 체계 구축, 청



이한기 의장

년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강화 그리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농업, 임업, 상수도 관련 질의를 했다.

박명석 의원은 홍삼한방산업 활성화 대책, 친환경농·특산물 판로 대책, 댐 수몰지역

지·간접보상토지 활용 방안, 댐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 대책, 공공시설 내 조경수 관리 대책, 상주인구 유출 방지와 유동인구 증가 방안 등 홍삼, 도시계획, 인구대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배성기 의원은 진안군 흑돼지 브랜드 '갈도야' 지원 대책, 귀농귀촌인구 유입 정책 마련, 진안군의료원 등 경우 버스노선 대책,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민간위탁 운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진안의료에듀센터 운영 활성화 등 비효율적인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옥주 의원은 고품화, 영세 농가를 위한 유통판매 체계구축, 농가 일손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설치, 결혼이주여성 지원, 진안고추 판로 대책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농업과 여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힘을 쏟았다.

이밖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대표축대 발굴 및 기반시설 확충, 지적권산림치우원의 국가사업 추진(이산갑수 의원), '금첨무' 계승과 활성화 방안(신갑수 의원)을 피력하며 군의 가치를 보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피해보상 국도비 지원과 쌀시장 전면개방 철회 촉구 그리고 쌀쌀용 쌀수입 전면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농업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고, 용담호 맑은 물 지키기 성명을 발표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원격감시장치 조작성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중환 의사결정으로 주목할 만한 안건은

2015년 10월 진안군 현안으로 부각된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다채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심사숙고하고자 정읍 내장산 케이블카 등 5개소를 시찰하여 신중한 검토를 마쳤고, 2016년 5월 '진안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두고 한·반 토론회를 갖고,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여 보다 많은 군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의정활동은 진안군의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고자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귀중한 의사결정의 결실이다.

▶행정 시각시대 직접 손보며 자치입법권 행사

의회의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가 집행부로부터 시작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치입법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원 스스로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폐지함으로써 불편사항을 직접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7건을 의원발의하여 처리했는데 그 중 의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조례 개정 등 자정 활동부터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 제정도 있었다.

특히, 자율방범대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를 손보며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던 곳을 돌보기도 했다.

▶건설한 감시로 균형과 견제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매년 11월 2차 정례회에 맞추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실적소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세세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2014년에는 총 100건을 2015년에는 83건을 지적하고 시정·개선·검토 요구하였다.

사안마다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진안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평을 받았다.

▶제7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마치며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장은 개원 후 민생 현장 속을 돌아보며 살아있는 의제를 찾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올바른 시선과 경청의 자세로 군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한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사마다 가까이 동행해주시는 동료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폭 넓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의사일정 외에도 지방의회 연수와 워크숍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 활동은 전문지식 함양과 건설적인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 진안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은 구봉산 자연정화활동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한복 보내기 운동, 그리고 라오스 초등학생들에게 학용품 지원하며 그들에게 꿈을 심어줬던 것이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소통과 함께 진안군의회는 군민 그리고 집행부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돼 우리 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부진 의지를 갖고 초심을 잃지 않고 후반기에도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가 오롯이 구현될 수 있도록 꾸준한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제7대 진안군의회 전반기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2016년 7월 제7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진안=우태만 기자)